

고우 스님 “금강경은 세탁기”

불교인재원 ‘육조혜능 구결 금강경’... 매월 둘째 주 수요일 강좌

“<금강경>은 세탁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와 상대 모든 것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나’라는 울타리를 세탁하고, 생각을 세탁하는 것이 <금강경>입니다. 세탁을 하고나면 무한향상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우 스님(봉화 금봉암)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인재원(원장 엄상호)가 주최하는 선지식 초청 <육조혜능 구결 금강경> 첫 강의가 9월 8일 시작됐다.

스님은 “<금강경>은 시공을 초월해 삼라만상의 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을 주는 경전이다”며 “<금강경>을 통해 고민의 근원을 해결하고 생각을 바꾸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우 스님은 이번 강의에서 생활 속에서 불교적 가치를 발견시키고,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준다.

“이 세상에 태어나 문제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민을 떨치고 깨달음에 이른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공을 초월해 근원적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세상은 부정부패와 혼란, 고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과 관계없는 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생활을 떠나 불교를 하는 것은 토끼뽕을 구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현재의 불교를 반성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근본적인 데서부터 해결해 주는 ‘살아 있는 불교’ ‘생활 속 불교’를 전해야겠습니다.”

<금강경>은 많은 불자들이 수지독송 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여전히 많지 않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고우 스님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쉽고 이해하기 좋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님은 무엇보다 영무새처럼 위우는 경전이 아닐까 바란다. “<금강경>에 대한 이해 없이 아무리 위도 소용없다”며 이해하고 실천하는 강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강의에서는 아부 스님의 계승 번역 강의를 함께 진행한다. 스님은 “아부 스님의 계승은 깨달음을 얻는데 가장 필요한 계승이다. 계승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 싶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의에서 아부 스님의 계승을 해석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주관과 객관을 초월해 부처님의 깨달음의 내용을 표현한 것을 함부로 말로 설명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는 주관과 객관이라는 상호 체계로 이해하고 교육받고 살아왔습니다. 주관과 객관은 우리의 깊은 마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요.



고우 스님은 9월 8일 불교인재원 선지식 초청 첫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육조혜능 구결 금강경>을 교재로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관과 객관을 두고 사고를 하게 되면 자신의 문제해결을 통해 행복 지려는 마음과 조건을 밖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밖에 있는 것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항상 있기 때문에 완전한 행복은 아닙니다. 주관과 객관은 무의식에

서부터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불교는 무의식에서부터 주관과 객관을 나누지 않아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착각과 오해로 세상을 살아왔는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안으로 찾았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안에 있는 가치를

알고 밖으로 추구하게 되면 그것을 얻는데도 더 쉽고, 얻은 후에도 역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이 보이고 이웃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죠. 그것이 보살입니다. 이 세계의 뿌리, 근본을 이해하는 자리가 왜 개인을 벗어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한 공부를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문을 통해 늘 세상 소식을 접하는 스님의 법문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나 현상들을 불교적으로 해석 접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우 스님의 법문을 이해하기 좋다고 말한다. 스님은 앞으로 ‘나’에 대한 것부터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걸쳐 생동감 나는 강의를 펼쳐갈 예정이다. 강의는 <금강경> 강설과 아부 스님의 송을 듣는 강좌로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2011년 6월 8일까지 진행된다.

고우 스님은 양산 묘관음사 선원에서 첫 안거 이래 일생을 수선남자의 길을 걸어왔다. 1970년 전후에 봉암사 주지를 맡아 선원을 재건해 오늘날 조계종 종립 특별선원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금은 경북 봉화 금봉암에 주석하고 있다. 이성언 기자

기고

달력에도 문화주체성 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대왕 세종’에서는 조선만의 역법(曆法)을 만들기 위해 세종이 장영실 등과 더불어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날짜를 비롯한 시간 단위의 정확한 측정과 그 공유는 국가의 경영에도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경일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정해진 달력을 통해 지방마다 제각각 경축한다고 가정해보자.

신문을 통해 늘 세상 소식을 접하는 스님의 법문은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나 현상들을 불교적으로 해석 접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우 스님의 법문을 이해하기 좋다고 말한다. 스님은 앞으로 ‘나’에 대한 것부터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분야에 걸쳐 생동감 나는 강의를 펼쳐갈 예정이다. 강의는 <금강경> 강설과 아부 스님의 송을 듣는 강좌로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저녁 7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2011년 6월 8일까지 진행된다.

조선에서는 동지에 임금이 신하들에게 편력(編曆)을 나누어주

작되고 있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1950~1960년대는 당연히 ‘월화수목금토일’이 기본이었다.

요즘처럼 일요일이 앞에 나오는 달력은 추정컨대 미국의 월가를 장악했던 유대인들의 발상이 아닌가 싶다. 어쨌든 미국을 비롯해 일본과 한국 등에서는 마치 유행인 양 일요일을 앞세운 유대력을 아무 생각 없이 쓰고 있는 꼴인데, 생애적으로 유대교에 시시콜콜 대립각을 세우는 기독교인들도 그네들의 주일을 앞세우고 있는 요즘의 달력에 대해선 오히려 선호하는 감정이 더 많은 듯하다.

하지만 일주일에 대한 세계적인 기준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고, 삼성 등 대기업에서 전 세계에 유포하기 위해 제작하는 카렌다는 모두 월요일로 시작한다. 그리고 주40시간 근무가 보편화되어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주말의 계

월요일로 시작하는 달력 제작해야

었다. 오늘날 집에서 동짓날 달력을 배포하는 것도 이와 같은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다.

양력이 전 세계의 공통된 책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전통에는 없던 항목 하나가 새로 추가되었다. 요일 내지는 주간이라는 단위가 그것이다. 본래 일주일이란 단위는 유대인들의 <구약>에서 출발한 것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하루 쉬었다’는 대목을 바탕으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삼아 하루 쉬며 신앙을 점검하는 날로 삼았던 것이다.

안식일이라는 관념이 서구사회 전반의 풍습으로 발전했는데, 다 그 날짜는 일요일이 되었다. 말하자면 예수가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은 뒤 3일만 일요일에 부활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 주일의 순서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레 되뇌여 지듯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며, 주말이라고 하면 당연히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말한다. 그리고 지금도 유럽의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의 순서에 의해 제

획을 세우기 위해서도 토요일과 일요일이 틀려 있는 본래대로의 달력이 더 실용적일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1년의 일부를 주간단위로 설계하여 실행하는 회사에서는 전체 53주 중에 몇 번째 주를 따지는데, 그때의 주초는 월요일로 시작되고 일요일은 주말이다. 이것은 대부분의 업무용 다이얼에서 월요일로 시작되어 일요일로 끝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찰에서 배포하는 달력은 앞서 밝힌 이유로 타종교인들에게도 대단히 선호되는 물건이다. 이제 불교계 달력은 우리 문화의 주체성을 함양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입각한다는 측면에서 일주일이 월요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조계종출판사에서서는 월요일로 시작되는 달력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영근 미디어84000 대표

‘4대강 화쟁 토론회’ 열린다

조계종 화쟁위 16일... 정부·정치권·NGO 한자리에

화쟁으로 4대강 관련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NGO 단체 책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 이하 화쟁위)는 9월 16일 오후 2시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4대강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4대강 화쟁 토론회’를 개최한다.

화쟁위 총무위원 법안 스님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많은 자리가 있었지만 정부, 여야, NGO 등 논의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한 적은 없었

다. 찬성·반대의 극단적 논리가 아닌 화쟁 논법을 통해 4대강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화쟁토론회에는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는 원희룡 사무총장이, 민주당에서는 이미경 사무총장이, NGO에서는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박진섭 집행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혹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을 검토 중이다. 토론회 사회는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가 맡는다.

토론회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사회갈등 및 국론분열 현실인식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총론적 대안 마련 △4대강 사업을 둘러싼 기술·환경·질차적 쟁점 대안 모색 등이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토론회는 정부, 여야, NGO가 4대강 갈등 해결을 위한 입장을 발표하고, 사회자의 문답토론, 위원장 부 측에서는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혹은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을 검토 중이다. 토론회 사회는 시사평론가 고성국 씨가 맡는다.

화쟁위는 이날 토론회 등을 거쳐 9월말에서 10월 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1차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종섭 기자

전통불교문화원 개원 1년만에 흑자

매월 수천만원의 종단 지원금으로 운영되던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이 개원 1년 여 만에 흑자를 기록하는 등 안정 운영 중이다.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원장 해오, 이하 문화원)은 9월 8일 서울 인사동 모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0년 전통불교문화원 연수 현황’ 등을 밝혔다.

문화원 박희승 부장은 “지난해 6월 개원 이후 올해 8월 처음 연수수입이 1억원을 달성해 월 결산으로 첫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통불교문화원에는 8000여 명이 다녀갔으며, 매출액 4억 여 원을 기록했다.

문화원 이용객수는 조계종 총무원·교육원·포교원과 종립학교, 복지재단 등 고계 단체 및 시설에서 77건(57%)이었으며, 일반 기업·단체의 이용도 58건(23%)에 달했다. 또, 참선프로그램 등 자체 연수프로그램은 18건(16%)였고, 개인 등의 이용도 2%였다.

박희승 부장은 “올해 여름기간 중 자체 프로그램인 참선입문과정(6박7일)과 선재 스님의 사찰 감치 만들기 과정(1박2일)을 개설해 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문화원은 연수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041) 841-5050 조종섭 기자

정성들여 만든 불교달력 ▶ 최저할인가격으로 보답합니다.

동진기획 상호는 출판사등록 제11-67호입니다. 붓다쇼핑 사이트에서 회사소개를 클릭하시면 출판사 등록증, 인쇄소등록증, 통신판매신고증, 사업자등록증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12절

1,000원

(1,000부 이상)

달력 할인가격표	
국6절(대)	1,900원 → 1,400원(200부이상)
4*6 12절	1,600원 → 1,100원(200부이상)
차 걸 이	650원 → 450원(200부이상)
미 니	800원 → 450원(200부이상)
다이어리	1,000원 → 650원(200부이상)
한 지	2,200원 → 1,700원(100부이상)
탁 상	2,700원 → 2,200원(100부이상)

- 총 42종의 달력이 있습니다.
- 대량주문시 사전 전화 문의 바랍니다.
- 달력·용품카드로그가 필요하신분은 (051) 515-8888로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국6절 붓다의 메아리

국6절 천진미소

국6절 맑고 향기롭게

국6절 가을의 향기

국6절 맑은 마음

12절 반야동자

12절 복 많이 받으세요

12절 부처님의 꽃

12절 반야심경

12절 세계의 명찰

12절 들꽃의 향기가 머무는 산사

12절 관음도

12절 홀로있는 시간

12절 마음이 머무는 곳

38호 행복달마도 (한지)

30호 나를 다스리는 말 (다이어리)

29호 들에도 꽃이피네 (미나)

25호 동승일기 (미나)

동진기획 · 붓다쇼핑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대표번호 : (051)515-8888 H·P : 011-554-2988, 011-879-0889

Tel : (051)515-2988, 555-1087, 508-9377~8, 070-7425-0518

Fax : (051)508-0101 E-mail : dongjin8888@naver.com

검색창에 [붓다쇼핑]

대표전화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H·P 011-554-2988, 011-879-0889